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 15장 세상의 빛

『산상설교』 상권 제15장, 인쇄 199~21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14

> ❓ **지식도 기술도 넘치는 시대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의 빛'일 수 있을까?**

###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세상 기준으로 보잘것없던 제자들, 곧 오늘의 평범한 참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이 말씀의 부정적인 뜻을 짚는다. '너희만이' 빛이라면 세상은 어둠이다. 그는 르네상스와 계몽 이후 지식이 엄청나게 늘었어도 삶의 근본 문제에서는 세상이 여전히 캄캄하다고 진단한다. 이어 긍정적인 뜻으로 넘어간다. 그리스도인이 빛인 까닭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금이 빛보다 먼저 언급된 순서에서 '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앞선다는 원리를 끌어낸다. 끝으로 빛이 하는 세 가지 일을 설명한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의 원인(하나님을 떠난 죄)을 밝히며, 어둠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그리스도)을 보여 준다. 설교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 📜 절별 정리

### 📜 1. "너희, 그리고 너희만이" — 계몽의 시대에도 세상은 어둡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 눈에 전혀 하찮은 단순한 사람들이었다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말씀이다. '너희는'에 강조가 있으므로 이 말은 “너희만이 빛”이라는 뜻이 되고, 그 안에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세상은 15~16세기 르네상스와 18세기 계몽운동 이후로 늘 '계몽', 곧 빛을 이야기해 왔다. 로이드 존스는 계몽운동이 철학과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의 계시 자리에 앉힌 성경 권위 공격의 시작이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식이 자연과 질병 같은 분야에 큰 빛을 던졌다는 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20세기의 지식이 기계적·과학적인 쪽에만 쏠렸다는 데 있다. 삶을 삶답게 하는 지식, 곧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조금도 늘지 않았다. 원자력이 그 예다. 원자력을 발견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 개인의 삶, 대인관계, 집단 사이(산업경제 문제), 국가 사이 어디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없던 결혼 안내 강습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이 어둠을 보여 준다.

사상가들도 길을 잃었다. 로이드 존스는 한 저명한 철학 교수의 책 『사람의 상태』에 대한 서평을 인용한다. 분석은 훌륭하지만 궁극적 원인과 해결책은 말하지 못하니 도움이 안 된다는 평이었다. 그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람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주님의 이 말씀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놀랍다. 로이드 존스는 백 년 전이었다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미소 지었겠지만 오늘은 역사 자체가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1. '너희'는 평범한 참 그리스도인, 곧 우리다
2. '너희만이 빛' = 세상은 어둠이라는 선언
3. 지식은 늘었지만 삶의 지식은 늘지 않았다
4. 사상가들은 분석만 할 뿐 원인과 답이 없다
5. 오늘의 역사가 이 말씀을 증명한다

> **마태복음 5:14**
>
> 본문.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한다
>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마태복음 5:3~12**

[3]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고린도전서 1:21**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철학을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삶을 더 안다는 근거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 📜 2. 왜 그리스도인이 빛인가 — 빛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로이드 존스는 긍정적인 뜻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핵심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나는 세상의 빛”을 늘 함께 읽는 것이다.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주님은 빛을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신자와 주님의 '신비한 연합'에 대한 가르침이다. 주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빛이 우리의 일부이자 생명이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된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빛은 그리스도이신 빛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신 빛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요한복음 14~16장의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다.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1. “나는 빛”과 “너희는 빛”은 늘 함께 간다
2. 빛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졌다

## 5. 빛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요한복음 8:12**

"나는 세상의 빛".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을 주신다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8**

"전에는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우리가 빛으로 만들어졌다

>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5**

하나님은 빛이시다. 신자 안의 빛의 궁극적 근원이다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23**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연합의 근거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야고보서 1:17**

'빛들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빛이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빛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 3. 왜 소금 다음에 빛인가 — '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먼저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팔복에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신 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을 먼저, “세상의 빛”을 그다음에 말씀하신 순서에 주목한다. 소금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직장에 있기만 해도 끼치는 일반적이고 다소 소극적인 영향이다. 빛은 가르치고 말하는 특정한 기능이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다. 먼저 내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느낀다. 그러면 그들이 내 행동을 보고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때 말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서를 뒤집는 경향이 많다. 대단히 계몽된 것처럼 말하지만 소금으로 살지는 않는다. 입술이 삶보다 많이 말하면 소용이 없다. 복음을 말로 전하면서 삶으로 부정하면 세상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둘은 늘 함께 가야 하지만, 순서는 주님이 정하신 대로여야 한다.

1. 소금(일반적 영향)이 빛(특정 기능)보다 앞선다
2. 성경은 행동보다 존재를 먼저 강조한다
3. 삶이 질문을 낳고, 그때 말할 기회가 온다
4. 입술이 삶보다 많이 말하면 소용없다
5. 둘은 함께하되 순서를 지켜야 한다

> **마태복음 5:13**
> 첫 번째 기능인 '세상의 소금'. 존재로 끼치는 영향이다
>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 **마태복음 5:14**
> 두 번째 기능인 '세상의 빛'. 소금 다음에 오는 순서가 의도적이다
>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3]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우리는 그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 그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 📜 4. 빛의 첫째 일 — 어둠과 숨은 일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빛임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로이드 존스는 이 질문을 "빛은 무슨 일을 하는가"로 바꾼다. 첫째로 빛은 어둠을 드러낸다. 캄캄한 방에 갑자기 전등이 켜지는 장면, 어두운 시골길을 비추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떠올리면 된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른다. 마태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표현한 것도 같은 뜻이다.

최악의 일들은 늘 어둠의 장막 속에서 일어난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도 밝은 빛 아래서는 그런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하나의 표준이 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거룩할수록 이 일은 더 일어난다. 모든 참된 부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세상이 결국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이 영향이다. 로이드 존스는 어떤 사람의 말을 빌려 이것을 "위선이 진리에게 바치는 공물"이라고 부른다.

가장 분명한 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미워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궁극적 이유는 그분의 절대적 순결이었다. 그분이 한마디 정죄하지 않으셨어도 그 순결이 그들의 본모습을 드러냈다. 요한복음 3장이 말하듯 악을 행하는 사람은 책망받기 싫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1. 빛이 있어 어둠이 어둠인 줄 안다

3. 거룩할수록 주위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4. 참된 부흥은 늘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5. 예수님은 순결 때문에 미움받으셨다

**마태복음 4:16**

그리스도의 오심 = 흑암에 비친 큰 빛. 빛은 어둠을 드러낸다

>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5:13**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빛의 폭로 기능이다

>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고린도전서 4:5**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숨은 일을 노출하는 빛이다

>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5**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세상이 둘로 나뉜다

>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7**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악은 어둠 속에서 번성한다

>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 📜 5. 빛의 둘째·셋째 일 — 어둠의 원인을 밝히고, 나오는 길을 보여 준다

빛은 숨은 일을 드러낼 뿐 아니라 어둠의 원인도 설명한다. 로이드 존스는 인도주의자로 알려진 줄리안 헉슬리 박사와 길버트 머리 교수의 방송 강좌를 예로 든다. 두 사람은 오늘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헉슬리는 삶의 목적을 볼 수 없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했다. 머리는 2차 세계대전과 국제연맹의 실패를 설명하지 못했고, 이미 실패한 '문화' 말고는 내놓을 처방이 없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빛은 여기서 원인을 말해 준다. 개인부터 국제 관계까지 모든 문제의 단 하나의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으며,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에 넣으신 규칙에 맞지 않으면 잘못되게 되어 있다. 분쟁과 시기와 악의를 끝까지 분석하면 죄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에 이르고, 그 뿌리는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한복음 3:19가 진단하듯, 빛이 왔는데도 사람이 자기 행실이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심판이다. 계몽 이후 200여 년의 지식에도 사람은 옳은 줄 알면서 악을 택한다. 양심이 경고해도 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는 셰익스피어 희곡의 유명한 대사를 빌린다. “허물은 우리의 운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빛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둠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을 보여 준다. 지식, 교육, 정치 법규, 국제회담을 다 시험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망은 거듭나는 데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만 하면 오히려 사람을 더 큰 절망에 빠뜨린다. 그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이 한 인격,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고 오셔서, 우리 죄책을 대신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새 성품과 새 생명을 주신다. 무엇보다 어둠을 사랑하던 사람이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삶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하냐”고 물을 때, 우리는 이 소식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 사람은 알면서도 어둠을 더 사랑한다
4. 교육·정치·회담은 본성을 바꾸지 못했다
5. 길은 그리스도와 거듭남, 곧 새 생명이다

> **요한복음 3:19**
>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심판이다. 세상 문제의 원인 진단이다
>
>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 **누가복음 19:10**
>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어둠에서 나오는 길이다
>
>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디모데전서 1:15**
>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세상에 전할 소식이다
>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람에게 문제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있지 않고 그의 본성에, 곧 격정과 정욕에 있습니다."

## ⚖️ 오해와 반론

## 📖 용어

**계몽(계몽운동)**

18세기에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세상을 밝힌다고 본 사상 흐름으로, 루이도 조스는

**르네상스**
15~16세기 헬라 고전을 재발견하며 일어난 학문과 문화의 부흥으로, 흔히 현대 문명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신비한 연합**
성령으로 신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신자 안에 들어오는 관계다.

**자연인**
아직 거듭나지 않아 타고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중생(거듭남)**
하나님이 죄인에게 새 생명과 새 성품을 주셔서 어둠 대신 빛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이다.

**타락**
첫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사건으로, 로이드 존스는 오늘 세계 모든 문제의 뿌리를 여기서 찾는다.

**부흥**
성령이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여 신자들이 새로워지고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일이다.

**인도주의자**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과 문화만으로 인류의 선을 이루려는 입장의 사람이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도 세상은 삶의 근본 문제에서 어둡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타락이다.
- 우리가 빛인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다.
- 소금이 빛보다 먼저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앞선다.
-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원인을 밝히며, 길이신 그리스도를 보여 준다. 세상이 묻게 하는 삶이 그 시작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